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|
|---|---|---|

**2020년 4월 2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2.(수) 14시부터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20. 4. 22(수) | 담당부서 | 석유산업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윤창현 과장(044-203-5220) | 담 당 자 | 신유철 사무관(044-203-5222) |

# 산업부 장관, "정유산업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"

## - 국내 정유4사 대표와 「정유업계 간담회」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4.22(수) 14시 성윤모 장관 주재로 국내 정유4사 대표들과 **「정유업계 간담회」를 개최**하였음

○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, 정제마진 악화 등에 따른 ❶**정유업계 위기상황을 점검**하고, ❷**업계 애로·건의사항을 청취**하는 한편, ❸**정부와 민간의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**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
**『정유업계 간담회』 개요**

◇ **(일시/장소)** 4.22일(수) 14시~15시 /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

◇ **(참석자)** 정부, 정유업계 대표, 지원기관 등 10여명
- **(산업부)** 성윤모 장관(주재), 자원산업정책관, 석유산업과장
- **(정유업계)** SK에너지 조경목 대표이사 사장, GS칼텍스 허세홍 대표이사 사장,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대표이사 사장, S-OIL 류열 사장, 김효석 대한석유협회장
- **(지원기관)**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,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

□ **성윤모 장관**은 정유업계가 직면한 **위기의 조기 극복**을 위해 **조치 가능한 지원수단을 지속 발굴해 지원**할 계획이라고 밝힘

○ 정부는 그간 △**석유수입·판매부과금 및 관세 납부유예**(각 90일/2개월), △**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 임대**, △**전략비축유 조기·추가 구매** 등 정유업계 지원정책을 발표·추진해 왔으며,

○ 앞으로도 △**석유공사 비축시설 대여료 한시 인하**, △**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수수료 2~3개월 납부유예**, △**대규모 석유저장시설 개방검사 유예**(협의 중) 등을 통해 업계의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

○ 나아가, 업계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**유관 부처와도 긴밀히 소통**하고 있으며, 향후 국민후생 증진 효과,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**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 협의**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

□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**경영여건이 매우 엄중**한 가운데 **정부의 세금 납부유예 등 지원정책이 도움이 되었다**고 평가하며, 업계도 **가동률 축소, 경비절감 등 자구 노력** 중이라고 밝힘

○ 하지만, **코로나19로 세계 석유수요가 급감**하여 수출 비중이 높은('19년 55% 수준) **국내 정유업계는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**될 것으로 우려하며, **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함**

□ **에너지경제연구원**은 금년 국제유가를 **38불/배럴 수준**으로 예측*하며, **국내·외 석유산업이 2분기까지는 힘든 경영여건**이 지속되고 **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**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

* [기준 시나리오] '20년 평균 38.48$/배럴 (OPEC+ 감산체제 유지 및 완만한 수요회복 가정)

○ 다만, **글로벌 석유기업**들이 **하반기부터는 사업다각화·신규투자 등 새로운 대응에 나설 것**으로 관측되는 만큼, **국내 석유산업도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혁신적 사업전략 모색이 필요**하다고 제언함

□ **산업부 성윤모 장관**은 "최근 정유업계가 처한 **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**하고 있다"며, 정유업계 **위기극복 및 경쟁력 유지**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

OPE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신유철 사무관(☎ 044-203-52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